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 경공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다가 2015년 이후 둔화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료품은 증가한 반면 의복, 섬유제품, 가죽신발 등은 부진했다.

금년 1분기에도 동남권 경공업의 생산, 수출, 고용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의 경우 의복, 가죽신발, 인쇄 등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은 고무제품, 기호식품, 플라스틱제품, 기타 식물, 편직물 등 상위 5대품목이 모두 부진하면서 4.1% 감소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가죽신발, 의복 등을 중심으로 2.2%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경공업은 동남권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과거에 비해 위상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여전히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중공업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남권 경공업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은 전국대비 14%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섬유제품이 주력

동남권 경공업 사업체수는 2018년 기준으로 2만 7,262개, 종사자수는 17만 3,42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전국 경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0%와 14.2%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체수의 경우 부산이 동남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43.4%), 울산(9.0%)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경남 비중이 4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43.1%), 울산(8.4%) 순이다.

업종별 종사자수는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섬유제품 등 상위 3대 업종이 동남권 경공업에서 69.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의복(7.1%), 가죽신발(5.7%), 기타 제품(4.8%), 목재(3.9%), 가구(3.6%), 인쇄(3.5%), 음료(1.7%), 담배(0.7%)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경공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개, 명, %)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사업체수	27,262 (100.0)	12,979 (47.6)	2,461 (9.0)	11,822 (43.4)
종사자수	173,426 (100.0)	74,831 (43.1)	14,525 (8.4)	84,070 (48.5)

주 : 1) 2018년 기준 2) ()내는 동남권 대비 비중

동남권 경공업 업종별 비중

(%)

구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1위	식료품 제조업	35.7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30.1
2위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13.8	식료품 제조업	27.6
3위	섬유제품 제조업	9.2	섬유제품 제조업	11.4
4위	의복 제조업	8.7	의복 제조업	7.1
5위	기타 제품 제조업	8.7	가죽신발 제조업	5.7
6위	인쇄 복제업	7.0	기타 제품 제조업	4.8
7위	가구 제조업	6.9	목재 제조업	3.9
8위	가죽신발 제조업	4.6	가구 제조업	3.6
9위	목재 제조업	4.6	인쇄 복제업	3.5
10위	음료 제조업	0.7	음료 제조업	1.7
11위	담배 제조업	0.0	담배 제조업	0.7

주 : 동남권 경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참고] 경공업 업종 분류

구분	중분류		소분류 (구성품목)
	코드	업종	
1	C10	식료품 제조업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제조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	C11	음료 제조업	· 알콜음료 제조업 ·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3	C12	담배 제조업	· 담배 제조업
4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5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조업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의복 제조업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6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나무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8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 기록매체 복제업
9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고무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	C32	가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11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료 : 통계청

최근 5년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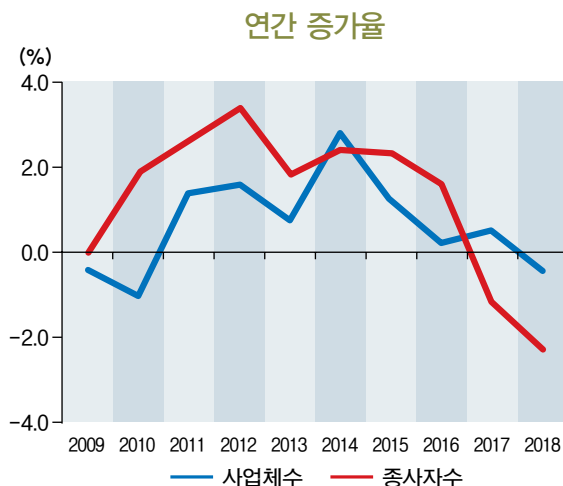
동남권 경공업 사업체수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었으나 최근 5년간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14년중 연평균 사업체수 증가율은 1.6%에 달했으나 2014~18년중에는 0.4%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010~14년중 연평균 3.1% 증가했으나 2014~18년중에는 1.3%로 낮아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부산은 같은기간 0.6% 증가세에서 감소세(-0.7%)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부산, 경남과 달리 1.2%에서 1.4%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의 경우 201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17~18년중에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2010~14년중 2.6%에서 2014~18년중 0.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같은기간 5.4%에서 0.4%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남은 3.3%에서 0.6%로 증가세가 낮아졌으며 부산은 플러스 성장(1.3%)에서 마이너스 성장(-0.5%)으로 전환되었다.

동남권 경공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율



기간별 증가율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10~'14	'14~'18	'10~'14	'14~'18
부산	0.6	-0.7	1.3	-0.5
울산	1.2	1.4	5.4	0.4
경남	3.1	1.3	3.3	0.6
동남권	1.6	0.4	2.6	0.1

주 :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 (CAGR)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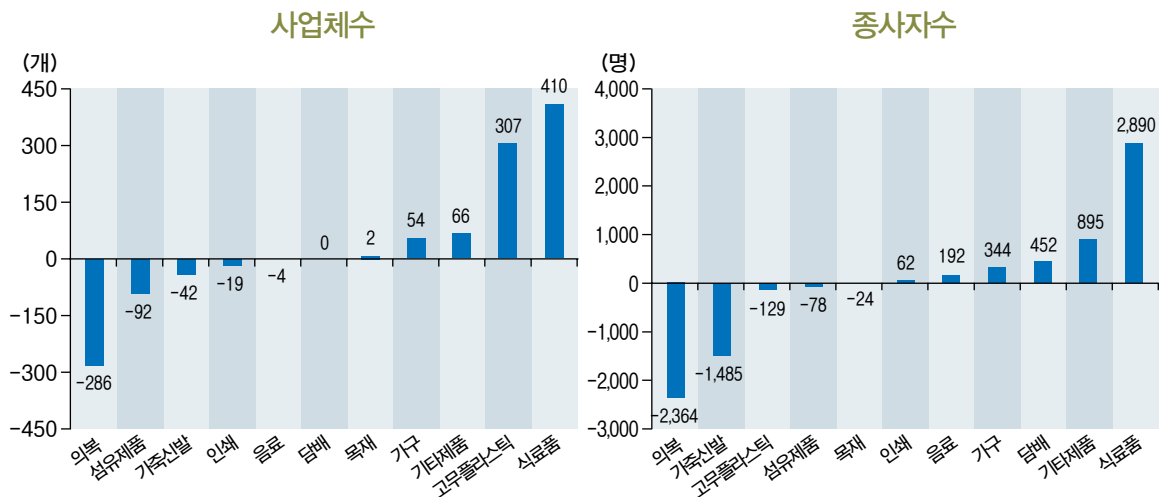
식료품 증가한 반면 의복, 섬유제품, 가죽신발 부진

최근 5년간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복, 섬유제품, 가죽신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 가구, 기타제품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의복(-286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섬유제품(-92개), 가죽신발(-42개), 인쇄(-19개), 음료(-4개) 순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식료품(410개), 고무플라스틱(307개), 기타제품(66개), 가구(54개), 목재(2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도 의복(-2,364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죽신발(-1,485명), 고무플라스틱(-129명), 섬유제품(-78명), 목재(-24명) 순으로 줄었다. 반면 식료품은 2,890명 증가했으며 기타제품(895명), 담배(452명), 가구(344명), 음료(192명), 인쇄(62명) 등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경공업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



주 : 2014년 대비 2018년 증감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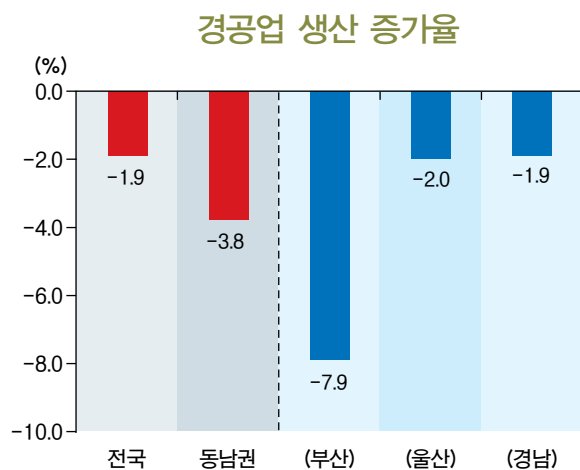
주 : 2014년 대비 2018년 증감
자료 : 통계청

금년 1분기 생산은 3.8% 감소 의복, 가죽신발, 인쇄가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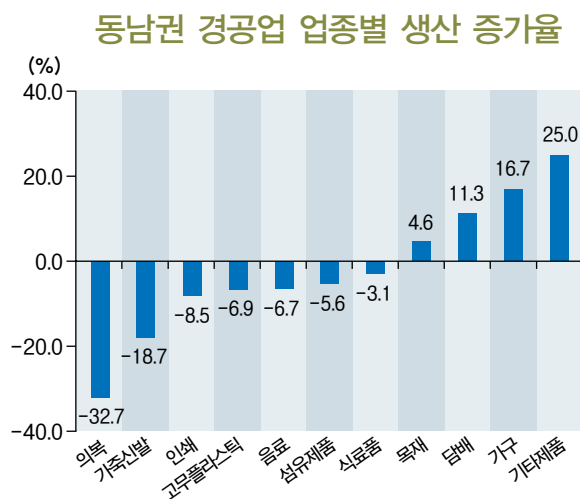
동남권 경공업 생산은 금년 1분기중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지역별 감소율은 부산이 -7.9%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울산 -2.0%, 경남 -1.9%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국(-1.9%)은 동남권에 비해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의복(-32.7%)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은 최근 5년간 지역 경공업에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금년 1분기 중에도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업황 위상 회복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다음으로 가죽신발(-18.7%), 인쇄(-8.5%), 고무플라스틱(-6.9%), 음료(-6.7%), 섬유제품(-5.6%), 식료품(-3.1%) 순으로 생산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타제품(25.0%), 가구(16.7%), 담배(11.3%), 목재(4.6%) 등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 2020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2020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1) 경제권역별(동남권) 경공업 생산지수는 통계청에서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별 경공업 생산지수와 매출액 기준 가중치를 활용하여 BNK금융경영연구소에서 추정

상위 5대품목 수출도 모두 부진

동남권 경공업 수출²⁾은 금년 1분기중 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전국 수출은 1.2% 증가한 102억 5천만 달러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증가한 반면 울산, 경남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수출실적이 2억 8천만 달러에 그치며 동남권 지역중 감소율(-8.3%)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8억 달러를 기록한 경남이 -5.5%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부산은 4억 8천만 달러로 0.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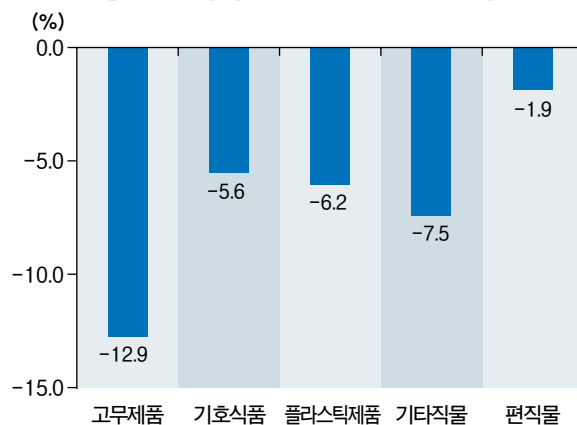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동남권 5대 수출품목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최대 수출품목인 고무제품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2.9%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5위 수출품목인 기호식품(-5.6%), 플라스틱 제품(-6.2%), 기타직물(-7.5%), 편직물(-1.9%) 등도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공업 수출 증가율

(천달러, %)			
구분	2019.1분기	2020.1분기	증가율
전국	10,130,763	10,250,076	1.2
동남권	1,629,916	1,562,314	-4.1
부산	481,188	484,827	0.8
울산	304,687	279,449	-8.3
경남	844,041	798,038	-5.5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경공업 5대 수출품목 증가율



주 : 1) 2020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상위 5대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경공업 수출은 MTI 1단위 기준(괄호내는 코드 번호) 농림수산물(0),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3), 섬유류(4), 생활용품(5), 잡제품(9)의 합계액임. 농림수산물(0)의 경우 가공품(식품 제조) 코드만 별도 분류하여 집계

3) 5대 수출품목이 동남권 경공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3%(2020.1분기 기준)에 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2.2% 감소

고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분기중 동남권 경공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16,73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경우 868,719명으로 같은기간 -1.5%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울산, 경남 모두 고용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은 금년 1분기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하며 동남권 지역 중 가장 부진했으며 다음으로 경남(-1.8%), 울산(-0.7%)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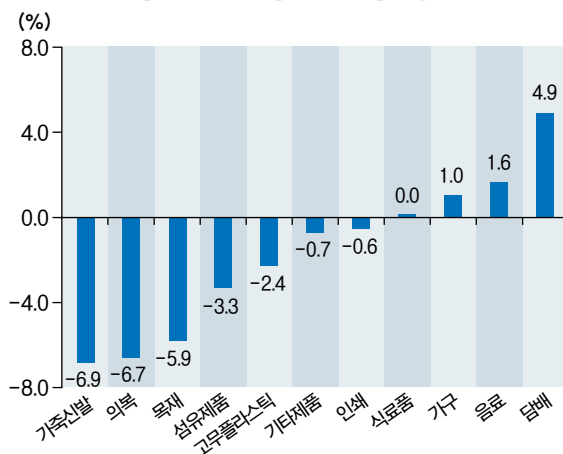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경공업 11개 업종중 7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죽 신발, 의복, 목재의 경우 5%가 넘는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다음으로 섬유제품(-3.3%), 고무플라스틱(-2.4%), 기타제품(-0.7%), 인쇄(-0.6%)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배(4.9%), 음료(1.6%), 가구(1.0%) 등은 고용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공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구분	2019.1분기	2020.1분기	증가율 (명, %)
전국	881,563	868,719	-1.5
동남권	119,410	116,738	-2.2
부산	51,822	50,227	-3.1
울산	11,533	11,448	-0.7
경남	56,054	55,063	-1.8

주 : 2020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고용보험 DB

동남권 업종별 고용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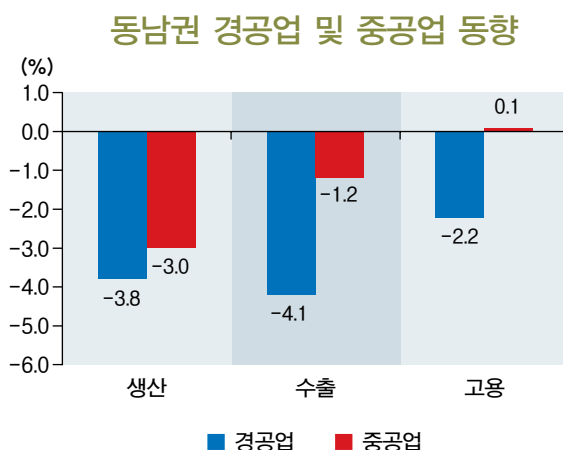
주 : 2020년 1분기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자료 : 고용보험 DB

동남권 경공업은 생산, 수출, 고용 모두 중공업 대비 부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비침체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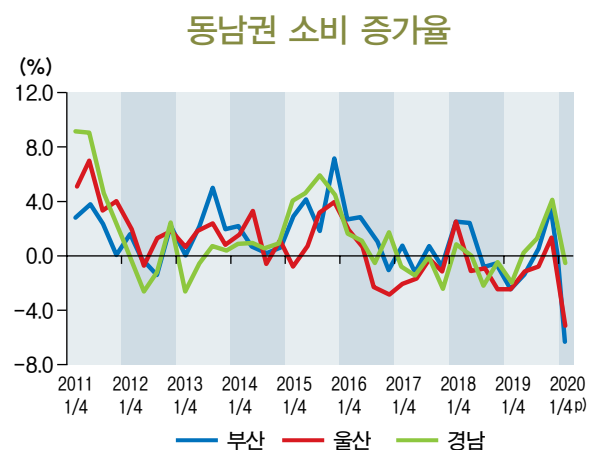
동남권 경공업은 금년 1분기 생산, 수출, 고용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섬유제품, 의복 등 주력 업종 대부분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공업은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중공업 보다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분기중 동남권 경공업 생산은 -3.8%, 수출은 -4.1%를 기록하며 생산과 수출이 각각 -3.0%, -1.2% 감소율을 기록한 중공업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고용의 경우는 중공업은 0.1% 증가한 반면 경공업은 마이너스 성장(-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 소비감소가 경공업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소비 부문 충격이 경공업 부문에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 1분기중 동남권 전지역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부산(-6.5%)과 울산(-5.2%)의 경우 최근 10년중 가장 큰 폭의 감소율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주 : 1) 2020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고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4) 경남의 소비는 금년 1분기중 전년동기대비 0.5% 감소

경공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높아 사양산업 인식에서 벗어나 성장산업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지역 제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오랜기간 활력이 약화되어온 경공업은 이번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에 입지하고 있는 21개 경공업 관련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금년 1분기중 전년동기 대비 18.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규모 등이 취약한 비상장기업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인 업황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경공업은 동남권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다. 과거에 비해 위상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사업체수가 2만 7천개에 달하고 일자리도 17만개 이상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여전히 큰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동남권 제조업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 36.3%, 종사자수 기준은 21.6%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경공업이 동남권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리턴 등 공급망 안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베트남 등 해외 현지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경공업체들이 리쇼어링 대상지역으로 동남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함께 경공업은 사양산업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성장산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첨단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의류, 신발, 고무, 플라스틱 등 경공업 관련 제품의 고기능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2018.12

산업연구원,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의미와 교훈”, 2019.7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2010.12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20.3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크레딧, www.cretop.com

통계청, www.kosis.kr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6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공공업 동향 및 시사점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同苦同樂

동고동락 -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다

BNK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 살리기를,
내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앞장서 지원하겠습니다
늘 지역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 바로 **B**NK입니다



[BNK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15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온누리 상품권 22억원 구입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화폐시장 지원을 위한 장미꽃 나눔
방역마스크 10만개 배부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벤처투자 BNK 범프로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0-05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0년 5월 29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